

##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꿈보다 현실.

희망보단 생계를 위해 시시때때로 변해야만 했던 나의 진로.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미대에 입학할 형편이 되지 않아 패션디자인과에 진학했다. 대학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지만, 공부 또한 등한시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고 코피까지 쏟으며 노력해 얻었던 공모전 입상 경험도 여럿 있었으니 취직이 어려우리라곤 예상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언제나 세상의 벽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기만 하였다. 학자금 대출은 밀려 있었고 당장 이번 달 월세도 걱정인 마당에 남들처럼 이것저것 따지거나 썰 수는 없었다.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곳이라면 나의 꿈도 전공도 상관 없다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이곳저곳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다행히 침구를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고 나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직장인이 되었다. 딸자식 대학 공부시키기 위해 허리가 휘청이도록 농사일 하시던 흠어머니와 아직 어린 두 동생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리란 생각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다.

낮설고 생소한 침구 회사에 다니면서 나는 업무를 배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의상디자인과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른 이 회사에서 쓸모 있는 직원이 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꽤 버거운 일이었다. 게다가 크지 않은 회사였기에 인력은 부족했고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기한 또한 넉넉히 주어지지 않았다. 눈치껏 선배들의 일을 뒤치다꺼리하면서 제 몫의 일감도 찾아야 했고 자신의 자리 또한 재빨리 만들어야 했다. 어머니께 드릴 빨간 내복을 사놓고서도 고향집에 갈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부족했지만 밀린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내고 월세를 충당할 수 있었다.

일 년여가 다 되어갈 무렵에야 내가 디자인한 이불이 OK 사인을 받을 수 있었다. ‘드디어 인정받는 진정한 회사원이 되었다!’ 하는 성취감으로 뿌듯했지만, 그도 잠시.

“시영 씨! 동대문 ○○업체에 가서 이불 원단 고르고 오세요. 나머지 것은 내

가 진행할게.”

과장님의 말씀에 들뜬 마음을 안고 원단을 대어 주는 업체에 가보았지만, 그곳에는 내가 디자인하고 샘플까지 만들었던 원단과는 전혀 다른 것밖에 없었다.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온 나는 과장님께 찾는 원단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이상스러우리만큼 단호하셨다.

“그냥 얼추 비슷한 것이라도 고르면 되지 뭘 그리 까탈스럽게 굴어. 신입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밤낮없이 고생하며 만든 나의 첫 결과물이었다. 원단의 소재가 달라지면 디자인까지 달라 보이는 침구의 특성상 아무것이나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과장님께 의사를 전달했지만 번번이 묵살될 뿐이었다.

샘플을 만들 때 원단을 구입했던 업체에는 내가 원하는 원단이 있었고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묵묵부답이셨다.

그리고 며칠 뒤.

“시영 씨! ○○업체에 새로 들어온 원단도 많다니까 오늘은 결정하고 와요. 시간 늦어지면 다음 시즌 신제품으로는 못 나가는 거 알지? 그러니 오늘 꼭 선택하고, 참 이걸 차비로 쓰시고!”

과장님이 던져 주신 하얀 봉투 속에는 무려 백만 원.

1,000,000이란 숫자가 뚜렷하게 적혀있는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었다. 가슴은 두근두근 방망이질 치고 있었고 동시에 직장동료들이 소곤거리며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박 과장님이 ○○원단에서 뒷돈 엄청 받는다고 하던데?”

“부하 직원들이 디자인한 건 무조건 ○○원단으로 하라고 강요하잖아. 다 이 유가 있겠지.”

‘설마 아니겠지.’ 했던 동료들의 이야기는 내 손에 쥐어진 상품권과 함께 진실이 되어 돌아오고 말았다.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러 가는 직원에게 현금과도 같은 상품권을 줄 이유가 전혀 없지 아니한가.

복잡한 마음을 안고 해당 업체에 다시 가보았지만 내가 원하는 소재의 원단은 없었다. 비슷한 원단이 있긴 했지만 그 원단은 내가 샘플로 제작했던 원단보다 무려 두 배 이상 가격이 높았다.

당장 원단을 정하지 않으면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과장님의 말씀과 내 싸구려 핸드백 속에 들어 있던 고액의 상품권이 내 마음을 어지럽혔다. 나의 의견을 들어줄 과장님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상품권이 욕심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과장님과의 언쟁이 이어지면 회사에 다니는 것도 불편해질 것이다. 백만 원이면 두 달 치 월세도 넘는 돈이 아니던가. 내가 고집부린다고 회사가 달라질 일도 없지 않은가?’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뜬눈으로 고민해야 했다.

길고 긴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나는 결국 출근을 하자마자 과장님께 봉투를 돌려 드렸다.

“과장님!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 원단으로 정하면 침구의 가격이 40% 이상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샘플 만들 때 사용했던 원단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과장님은

“이불 많이 팔린다고 보너스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품 가격 올라가는 것도 네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뭘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회사 그만 다니고 싶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뭣도 모르는 게 어디 상사를 가르치려 들어?” 하고 언성을 높이셨지만 나는 내 뜻을 굽히지는 않았다.

나와 과장님의 다툼은 삼시간에 퍼져 나갔고 사장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과장님은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지만, 마지막 날까지

“어딜 가든 그리 꼬투리 잡고 융통성 없이 직장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대한민국은 관행이라는 게 있는 나라야! 주고받고 다 그리하며 사는 거지! 어디서 혼자 깨끗한 척이야? 너, 내가 이 회사 잘 다니게 놔두나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면서 짐을 꾸리셨다.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이러한 비리들은 비단 과장님 혼자만의 일은 아니었다. 연루되어 있던 다른 직원들이 꽤 있었고 나는 곧바로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양심을 지켰으니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슬금슬금 나를 피하는 동

료들 속에서 곳곳하게 회사를 다닐 용기까지는 낼 수 없었다.

사표를 냈지만 신입 사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데엔 며칠간의 말미가 필요했고, 퇴직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가 나를 찾는다는 소리에 회사 로비로 내려가니, 샘플을 만들 때 사용했던 원단 업체의 사장님이 내게 손짓하고 계셨다.

“어이구! 고마워요. 오늘 원단 납품 결제 받았어요. 정말로 감사해요. 이건 정말 작은 거지만 선물이니 꼭 받아 줘요!”

종이 한 장조차도 받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장님은 극구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뇌물 같은 거 줄 수 있는 형편도 안되는 회사라서…. 그저 오랫동안 정직하게 장사를 해 오긴 했는데 사실 오늘 망하나, 내일 망하나 그러고 있었거든요. 우리 공장에서 남은 자투리 원단으로 아내가 베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재활용품은 팔 수도 없는 거니 제발 받아 줘요.” 하며 사장님은 검정 비닐봉지 하나를 내 손에 쥐여 주시고는 저 멀리 뛰어가 버리셨다.

이틀 뒤.

나의 젊음과 열정을 쏟아부으리라 결심하며 들어갔던 생애 첫 직장을, 나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사하고 말았다. 다시 한참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자 때때로 후회가 밀려들었다. 나 하나로 그 회사가 달라질 것도 아니었는데, 관행이란 명목 아래 모두 다 그리한다던데, 나만 눈 질끈 감고 다녔으면 이리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더러는 내가 바보 같은 일을 한 것은 아니었나 싶었다.

그래도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곤 했다.

현실은 늘 꿈과 다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 일도 생기지만 그래도 양심만큼은, 정직만큼은 꿈과 희망보다 먼저 지켜야 할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던가.

꿈과 진로는 바뀔 수도 있지만 양심만큼은 움직여서도 변화해서도 안되는 절대적인 것임을, 나는 매일 밤 좁디좁은 자취방의 작은 침대에 누우며 깨달을 수 있었다.

삶은 썩썩했고 내일의 생활은 더 염려스러웠지만 재활용하였다는 그 베개를 베면 스프르 달콤한 잠에 빠질 수 있었다.

두 다리를 쪽 뻗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것. 양심을 지킨 자만이 맞이할 수 있는 그 편안한 밤을 세상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참으로 거룩하고 고요한 그 밤을…….